

[신춘문예]

동화, 삶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법

동화 당선소감



▲ 1969년 완도 출생
▲ 광주대 문예창작과 졸
▲ 전북아동문학회 사무국장

10년이 넘는 세월을 가슴 아프게 짹사랑한 동화였습니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눈물나는 사랑으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이성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너는 잘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힘내!” 처음 배운 핸드폰 문자로 답장을 보내 용기를 전해 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한 때는 제 기분에 취해 거만하게 방방 뜨고 있을 때 날 카로운 비평으로 정신을 확 깨어 만들어 주신 배봉기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동화를 읽고 쓰는 일이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내면과의 대화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 안에 있지만 모른 척,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동화를 통해 내면 속의 나를 만나고 사랑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동화를 읽고 쓰는 일은 삶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법을 지녔나 봅니다.

동화의 끈을 놓지 않게 연결시켜주신 전북아동문화회 회원, 광주대학교 동화 모임 회원들과 이 기쁨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동화는 늘 좋은 것, 좋은 생각만 해야 좋은 동화가 탄생 한다”며 배려해 주신 이호산씨!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동화 모임 때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도 불평 없이 씩씩한 민규, 민욱이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어 준 ‘광주일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불씨가 정말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율선

현대인의 불안심리 무리없이 다뤄

동화 심사평

동화는 동심의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을 다루거나 내적 상상력을 그려가게 된다. 환상적 이건, 삶의 진실이건 등심언어의 선택은 가치 상향적이어야 하고 그만큼 새로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신인이라면 당당히 낡은 소재, 낡은 기법을 멀치고 새로운 언어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예심을 거쳐 선자의 손에 들어온 작품들은 기본적인 소양을 지니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신선도가 떨어지는 아쉬움을 지니고 있었다.

폐기와 실험정신을 최우선 심사기준으로 하여 눈여겨 본 작품은 10편이다.

‘짱구탈출기’는 아래의 사업실패에 따른 어두운 음영을 깔고 있으며 대립하는 인물과 화해해 가는 심리적 과정을 그렸으나 군데군데 주제가 노출되는 결함이 발견되었다.

‘말하는 책받침’은 매직적 환상 기법으로 속도감 있게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으나 소품에 그친 아쉬움을 남겼다. ‘아기별꽃’은 시적인 문체가 돋보였으나 다소 신선도가 약했다.

‘핸드폰이 필요해’는 오늘의 아이들의 욕망을 암시하고 있으나 결말이 드러나 보이는 아

쉬움을 보였다.

‘눈사람과 한밤중에’는 간결체의 묘미와 튼튼한 구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새로움이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남은 ‘바다로 간 시계’는 구성과 문장력이 비교적 안정돼 있고 현대인의 불안심리를 다른 점에서 우선 개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결합력이 다소 떨어지는 문장이 더러 발견되었지만 시계라는 상징물을 내세워 강박관념을 무리없이 다른 점에서 가능성은 보여주었다.

당선을 축하하며 보다 탄력을 얻어 성숙한 작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윤삼현

▲ 전남대 교육대학원 국어과 졸
▲ 광주일보 및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시·동화 당선
▲ 아동문예학회 평론 단선
▲ 제13회 한국아동문학상 수상
▲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겸임교수